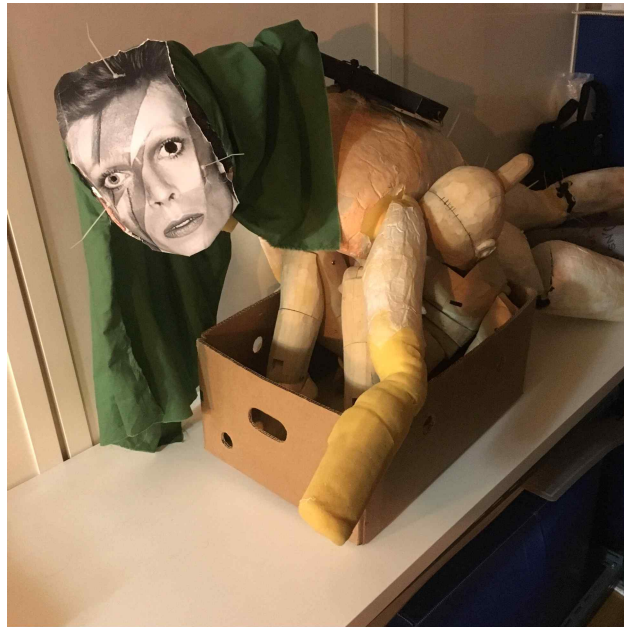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예술 #공유지 #백남준》 전시 연계 공연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문의	- 전시문의 : 이수영(t. 031-201-8553, m. 010-4288-2713) - 취재문의 : 강연섭(t. 031-201-8559, m. 010-2906-1746)		
자료	이메일에 기재된 링크로 다운로드		
배포	2018. 12. 27.	쪽수	총 4매

《#예술 #공유지 #백남준》 전시 연계 공연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Daperttuto Studio*〉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유령의 집>, 2018

- ▶ 2019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 《#예술 #공유지 #백남준》의 참여 작가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동명의 연극 작품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공연
- ▶ 명리(命理)에 근거한 백남준의 사유와 운명을 해석하여, 백남준아트센터의 불 꺼진 어두운 공간들을 백남준의 원국으로 파악하여 다페르튜토 스튜디오의 이전 작품들로 새롭게 해석
- ▶ '흐름'이라는 뜻을 지닌 플럭서스와 '어디에나'라는 뜻을 가진 다페르튜토 스튜디오의 공통점인 '끊임없는 변화'에 주목하여 백남준의 삶과 예술적 정체성을 연극으로 해석하는 작품

■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공연 개요

- 공연명 :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 공연일시 : 2019년 1월 4일(금), 5일(토) 오후 6시 (장소 : 2층 전시장)
- 참여작가 :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 출연 : 김승록, 이지형, 김은경, 밝닝쿨
- 연출 : 적극
- 무대미술 : 적극, 김혜림
- 주최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I.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기념전시 《#예술 #공유지 #백남준》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서진석)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2월 3일까지 개관 10주년 기념전 《#예술 #공유지 #백남준》을 전시 중이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 공유지, 백남준”이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한 이번 전시는 예술의 새로운 존재론과 소통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통하여 ‘공유지’로서의 미술관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한다. 백남준은 「글로벌 그루브와 비디오 공동시장」(1970)이라는 글을 통해서, 비디오를 유럽공동시장의 원형처럼 자유롭게 소통시켜 정보와 유통이 활성화되는 일종의 ‘공유지(Commons)’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백남준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몸담았던 예술 공동체 ‘플럭서스(Fluxus)’가 지향했던 예술의 민주적 창작과 사용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된다.

II.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소개

백남준이 활동했던 ‘플럭서스(흐름)’와도 상통하는 뜻인 ‘다페르튜토(어디에나)’는 연출가 적극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백남준’이라는 작가의 삶과 예술을 전시 공간에서 풀어내고자 한다. 《#예술 #공유지 #백남준》전의 일부로 기획된 연극 <다페르튜토 스튜디오>는 ‘명리’에 기반하여 극작 및 연극의 형태를 실험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명리는 태어난 시에 따라 주어지는 여덟 가지 한자에 기반하여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 그리고 운명까지도 읽어내는 학문이다. 명리에 따르면 백남준을 상징하는 원국은 어두운 검은 물이다. 밤이 되어 불이 꺼진 어두운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에 백남준의 원국을 상징하는 암(暗)이 내리고, 그 안에서 전시되는 작품들의 위치와 존재는 다페르튜토의 지난 극들을 재해석하는 장치로 다시 태어난다.

이번 연극은 서울의 신촌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다페르튜토 베스트 앨범(연극적 무비모음))과도 연계하여 진행된다. 백남준아트센터와 신촌극장에서 동시에 연극이 진행되고, 두 장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벌이는 흥미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작가 소개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다페르튜토 스튜디오_안산>, 2013

다페르튜토 스튜디오는 '어디에나'라는 뜻을 가진 이태리어로, '어디에나 있는 스튜디오' 또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스튜디오'라는 말이 된다. 다페르튜토 스튜디오는 이처럼 실험적인 정체성을 내세우는 극단으로, 연출가 적극을 중심으로 하여 희곡, 극장, 배우, 관객 등 연극을 이루는 주요한 조건들을 연극의 장르로서 실험하는 기획을 통해서 연극의 요소들을 점검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통의 연극은 극작, 연출, 무대, 연기, 관객 등의 요소가 분업되어 위계적으로 구성되지만, 적극이 연출하는 연극은 이러한 조건들이 연극 혹은 연출이라는 공유지 안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며 공존한다. 따라서 다페르튜토 스튜디오는 여러 목소리들이 서로를 경청하고 타협한다. 그리고 때로는 불화와 결정되지 않은 상태까지도 수용한다. 연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사유화되는 방식을 포기하는 연극은 연극 무대 뿐 아니라 일상의 장소와 전시장을 가리지 않고 극이 펼쳐질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넘어 '다페르튜토 스튜디오'로 확장된다.

■ 작가 노트

1

백남준의 원국

임오일주. 정미월주. 신해시주. 임신연주

사망한 해의 대운과 세운

갑인대운. 병술세운.

인오술삼합으로 대운에 떠오른 갑목을 태워버렸다.

백남준의 정체성은 어두운 검은 물.

빛으로 물이 통제당하며 사회에 필요한 힘이 되었다.

2

‘한낮의 빛이

어두움의 깊이를 어찌 아는가.’

갤러리. 불꺼진. 미로의 공간.

14개(공유지에 참여한 작가들)의 빛이 사라진 곳.

다양한 어두움. 블랙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연극적인 것들을 다페르튜토라고 하자.

3

‘다페르튜토’라는 말은 ‘도처에, 어디로나 흐르는’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이다.

일생동안 하나의 공연이 되려는 다페르튜토 스튜디오는 생명체처럼 작은 공연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며 그때그때의 조합들로 이루어지는 공연명이자 팀명이다.

다페르튜토라는 일종의 어둠 속에 서식하는 괴물의 이름이자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면에서 플럭서스와 백남준의 정체성을 함께 연상하며 백남준아트센터의 밤에 거주한다

4

백남준은 20개의 방.스코어를 통해

관객이 움직이며 관람하는 음악공연을 의도했다.

어두움 속 관객들은 14개의 어두움을 방문하며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공연조각들을 관람한다.

5

공연조각들의 원본은 다음과 같다

야생염소 유령의집 암세포삼형제 검피놀이 다페르튜토인형극 신촌극장랜덤엑세스 재물은아이
핀터의방 하염없이걸었다 불꽃놀이 타자 내일자살해야지 봉앤줄 전구관 큐알극장
춤매뉴얼하얀풍선 피에타 미노타우로스 아방가르드신파극

■ 《#예술 #공유지 #백남준》 관람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7~8월: 오전 10시 ~ 오후 7시)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